

전 세계 기상위성 사용자, 부산에서 미래를 논하다

- 기상청, 제13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상위성 사용자 학술대회 개최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11월 6일(월)부터 9일(목)까지 4일간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국내외 기상위성 사용자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제13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상위성 사용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2019년 이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해오던 행사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기상위성 분야 국제 학술대회로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넘어 전 세계로부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기상기구(WMO),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유럽 기상위성센터(EUMETSAT)를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50여 개국 기상위성 사용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기상청은 이번 학술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위성개발 프로그램,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서비스 및 교환, 예보분석 및 실황예보에의 활용, 수치예보에의 활용,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자료처리, 지상 및 해양 관측, 우주기상 그리고 관측기기 검보정 성능 등을 편성하여, 위성 개발과 활용 전반에 대한 주제로 연구성과 발표를 구성하였다.

또한, 기상청은 전 세계 기상위성 사용자들이 모이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위성 활용 교육훈련과 공동 조정그룹회의도 함께 개최한다. 특히, 기상청은 본 학술대회에 앞서 11월 3일(금)부터 5일(일)까지 충북 진천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기상위성 미보유국가 기상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천리안 기상위성 활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훈련도 실시하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참석자, 발표 목록 등은 학술대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학술대회 공식 누리집 가기  검색 누리집에서 'AOMSUC-13' 검색 혹은 아래 주소 접속
(https://nmsc.kma.go.kr/enhome/html/conference/AOMSUC_2023.do)

유희동 기상청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힘을 합치고 미래 기상위성 개발과 활용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기상위성 정보를 나누는 의미 있는 소통과 교류·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다.

붙임 제13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상위성 사용자 학술대회 개최 사진

| | | | | |
|-------|-------------------|-----|-----|--------------------|
| 담당 부서 |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 | 책임자 | 과 장 | 김도형 (043-717-0251) |
| | | 담당자 | 연구관 | 정성래 (043-717-0257) |



붙임

제13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상위성 사용자 학술대회 개최 사진

